

대한항공, 설 맞아 '사랑의 쌀' 300포 기증

15년째 총 74톤·2억원 상당 후원

대한항공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설 명절을 맞아 강서지역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기증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항공은 설 명절을 맞아 강서지역 이웃들을 위한 10kg 쌀 300포를 강서구청에 기증했다. 기증된 쌀은 지역 내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사랑의 쌀' 후원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대표적인 지역사회 후원 행사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이 후원한 규모는 쌀 74톤(2억원 상당)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나눔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강서구 '하늘사랑 바자회', '하늘사랑 김장 담그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초등학생



박경호 대한항공 총무담당 임원(오른쪽)과 김진선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이 '사랑의 쌀' 기증식 기념 사진을 찰영하고 있다.

대상·하늘사랑 영어교실' 및 강원도 농촌마을과 '1사 1촌 운동'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

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BK기업銀, 평창 올림픽 선수단에 격려금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한체육회에 격려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도진 은행장과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김지용 국가대표 선수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IBK기업은행

신점[神占] 운세 2월 5일(음 12월 20일)



60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2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84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96년생 도덕적인 행동을 우선으로 하세요.



61년생 때를 기다려 보세요. 73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97년생 회사에서 사소한 시비를 조심하세요.



50년생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2년생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74년생 가정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86년생 객지에서 친구를 만나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51년생 좋은 기술을 배울 여건이 됩니다. 63년생 학업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를 맛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사업 시기가 좋습니다. 87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52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64년생 몸의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76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88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53년생 큰 꿈은 포기함이 좋을 듯 합니다. 65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77년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89년생 주위의 양은 말을 듣고 겪이지 마세요.



54년생 엎지를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기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67년생 주변인들과 의견이 상반되어 위기가 옵니다. 79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91년생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56년생 동쪽은 유리하고 남쪽은 좋지 않습니다. 68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때를 만나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92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하지 마세요.



57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69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1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93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58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70년생 새 귀인을 만나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82년생 공적인 일엔 행운이 들어옵니다. 94년생 교통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59년생 순실이 발생합니다. 71년생 어떤 일이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95년생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심이 현명합니다.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들팡!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9x9 세로줄x3x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4				7	8		
2		3	6				9	
	9		6	3				
1	3				6	5		
2		7	1		9			
4			9			7		
6						1		
	8	5	1	3	4			

7		1		4		9		
5		2	6				4	
			7					
4			8		6	1	4	9
9	5	2	3			7		
6		3			2			
		1						
2		3	8				5	
1		5	9					

스도쿠 정답								
7	9	8	5	1	3	4	6	2
3	6	5	2	7	4	9	1	8
1	4	2	6	9	8	5	7	3
5	2	6	7	3	1	8	9	4
8	1	3	9	4	2	6	5	7
4	7	9	3	8	6	1	4	9
2	5	4	1	2	9	7	8	5
6	3	4	5	7	2	3	6	1
9	8	1	4	5	7	3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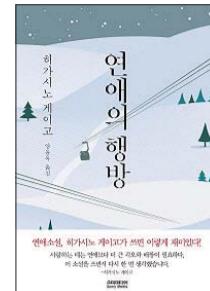
문제 제공=보노스

전화운세당 흥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흥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흥카페
(www.hongcafe.com)

새로 나온 책

연애의 행방

소미미디어/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 주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연애소설에 도전했다. 미스터리가 아닌 '연애'라는 낯선 소재에도 능숙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녹여낸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애사를 스키장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맛깔나게 풀어내는 그의 입담은 가히 이야기꾼이라고 할 만하다. 살인 사건도 악인도 없지만 여전히 뒷 내용이 궁금해 자꾸 페이지를 넘기게 만든다.

'겔렌데 마법'이라는 말이 있다. 겔렌데에서 만나면 이성이 실제로보다 몇십 퍼센트쯤 더 멋있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고글로 얼굴을 확인하기 어렵다든가 스키복으로 몸매를 가릴 수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 겔렌데의 분위기가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스키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사랑에 빠진다.

'백은의 책', '질풍론도', '눈보라 체이스'에 이은 스키장 연작 '설산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연애의 행방'은 사토자와 온천스키장을 무대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애사를 늘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저자만의 솜씨로 흥미진진하게 그려냈다. 양다리를 걸친 남자가 애인과 스키장에 놀러 왔다 공교롭게 약혼녀를 마주치고, 멋진 프리포즈를 하기 위해 스키장에 왔다가 의외의 상황에 봉착하거나, 스키장 단체 미팅에 참여했다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312쪽, 1만38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몸 편하고 맘 편하게 당당히 도망가는 방법

라이프맵/나가시마 데루 지음

오직 나 한 사람의 희생만을 바라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회.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자 나가시마 데루가 일본에서 1만 명 이상의 심리 상담 경험과 95% 이상의 놀라운 회복 실적을 통해 몸 편하고 맘 편하게 사회에서 도망가는 방법을 제시했다.

192쪽, 1만3000원

/신정원 기자

김상회의四季



행복도 불행도 인생

절세가인처럼 예쁜 미녀와 보기 드문 추녀가 함께 어느 마을을 찾아갔다. 해는 저물고 날이 어두워 쭈으므로 북을 곳이 필요해서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들겼다. 집주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눈이 부실 정도의 미녀가 있는 것 아닌가. 주인이 궁금해서 누구냐고 물어보자 여인은 "저는 행복을 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 주인은 어서 오시라는 듯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조금 뒤에 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추녀가 서 있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번에는 "저는 불행을 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는 당장 쫓아냈다. 쫓겨난 추녀는 "먼저 들어간 여자는 제 언니인데 우리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제가 쫓겨나면 언니도 함께 이 집을 떠납니다" 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름의 자매는 곧 그 집을 떠나 버렸다. 불교 경전 중의 하나인 아함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우화이다. 아함경의 이야기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한쪽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로 단순하게 분별을 한다. 벌어진 일의 한쪽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아함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면을 보아야 한다는 걸 깨우쳐 준다. 소년등과는 게 있다. 어린나이에 장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일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년등과는 살면서 꼭 피해야 할 일에 품한다. 빠른 출세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품성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중년이 되면서부터 액운을 불러오게 된다.

인생 전체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아주 나쁜 일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세상의 일이란 모두 양면성이 있다. 아함경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한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생길 때도 당연히 있다. 그런 일들을 길게 보면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슬픈 일이 뜻밖에 기쁨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니 어느 한쪽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아함경의 말처럼 행복과 불행은 떨어질 수